

범여 주자들 연석회의 '온도차'

정동영 "조만간 한번 만나자" 적극적 손학규 "先 독자세력화 주력" 소극적 친노후보 "가설정당론 상통" 긍정적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23일 제안한 '범여권 대선주자 7인 연석회의' 구성을 놓고 주자들 사이에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세력 간 대통합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참여 여부를 놓고서는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연석회의 구성방식과 시기, 경선 료 논의의 방향에 따라

온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 전 의장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대주주'인 정동영 전 의장은 연석회의 구성에 적극적이다. 정 전 의장은 전날 김 전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시작하자"고 화답한 데 이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조만간 한번 만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제 3 지대'에 머물고

있는 손학규 전 지사 쪽은 소극적 기류가 감지된다. 범여권 후보로서의 자리매김이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연석회의 카드를 받아들이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범여권 관계자는 "손 전 지사가 일찍 가담할 경우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면서 "범여권의 편이 일정하게 정립된 이후 들어오는 쪽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일단 내달 중순에 걸쳐 결사체인 '선진평화연대'를 띄우면서 선(先) 독자세력화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친노(親盧) 후보군 사이에서는 긍

정적 기류가 강하다. 연석회의 구성이 우리당의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후보연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친노진영의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조변 인사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가 범여권 정계개편론으로 거론하고 있는 '가설정당(Paper Party)'론과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설정당론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매개로 후보들이 연석회의를 꾸리고 이를 토대로 가설정당을 만들어 국민경선을 치르자는 것이 골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참석은 했지만... 어색한 만남
주요 대선 후보들이 24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권영길, 천정배, 손학규, 이명박, 정동영, 박근혜, 김근태씨.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가운데 앉아 있던 정동영 전 의장이 자리를 양보, 두 사람이 함께 앉을 것을 권유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親盧 '대안카드' 되나

盧대통령·DJ와 긴밀, 중도파로부터 신뢰 최근 범여 통합 중재역 자임 움직임 활발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범여권 대권구도의 중대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경선 출마의 뜻이 없었던 이 전 총리가 최근 범여권 통합의 중재역을 자임하고 북한, 미국 방문 등 활발한 외교 및 비전제시 활동을 통해 친노(親盧)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명숙 전 총리와 김혁규 의원이 사실상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에 복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

는 유시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전 총리를 포함할 경우 친노 진영 대선 경쟁구도는 '4파전'으로 확대된다.

일단 범여권은 대권 후보로서 이 전 총리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해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가진 김대중 노무현 전·현 대통령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론을 둘러싼 '친노 대 반노(反盧)'간 논쟁에서 대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중재역을 자임, 당내 친노 성향 의원은 물론 중진이나 중도파로부터도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충남 청양 출신으로 호남과 충청을 잇는 이른바 '서부벨트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따라붙는다.

이 전 총리가 부상하면서 친노의원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대선주자별로 흩어진 친노 성향 의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가진 김대중 노무현 전·현 대통령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北·美에 할말은 해야" 손학규에 남북관계 조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동교동 자택을 예방했을 당시, 남북관계를 비롯해 외교현안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이 똘똘, 미국이 똘똘 무슨 얘기는 하고 무슨 얘기는 안 하면 대화가 안된다. 이야기 할 것은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손 전 지사가 측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관련, 손 전 지사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진전을 이뤄 보람을 느끼겠다"고 평가하자 "미국에 북한의 숨소리까지 알려졌다. 숨길 게 없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23년만에 수송 행정소송법 내용과 의미

소송 사각 지대 최소화 국민 권익 구제에 초점

법무부가 24일 공개한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송 절차상의 사각 지대를 줄임으로써 국민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음은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

◇의무이행소송 도입=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어떤 신청을 했는데 기관이 법을 어기고 거부처분을 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소송이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거부 이유가 위법해 민원인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기관이 원래의 거부처분 사유와 다른 이유로 거부처분 이후 바뀐 상황을 이유로 또 거부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면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행정기관에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현재까지 법을 어긴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사후의 구제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행정기관에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

■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 주요내용

| | | |
|------------|------------|----------------------------------------------------------------------------------------|
| 국민 권익구제 확대 | 의무이행소송 도입 |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처분과 부작위 등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행정청이 정을 때 법원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 사전 구제절차 완비 | 예방적금지소송 도입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저지하는 제도 |
| 소송편의 | 가처분제 도입 | 면허 갱신 거부 등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낸 뒤 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생활에 총사할 수 없는 현상을 고려해 '임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가처분제 도입 |
| 소송 활성화 | 제소기간 연장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던 것을 '180일'로 연장 |
| | 당사자 소송 활성화 | 민사법원에서 하던 행정처분과 관련한 국가배상소송, 부당 이득판결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전담 |

집행정지조건 '중대한 손해'로 손해예상 예방적 금지 소송 가능

단 적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을 사전에 금지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위법한 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처분제도 도입=민사소송의 가처분 제도와 같은 취지이다. 행정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줘야 하는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 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택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가처

분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 때까지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집행정지 요건 완화=현행법 상으로는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판결확정 때까지 구제받기 어려웠다. 개정시안은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해 급진적 손해라도 중대한 손해라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소기간 연장=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소송가능 기간 '90일'을 '180일'로 2배 늘렸다.

/연합뉴스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 한화서 수사결과 협상 제의

서울 남대문경찰서 간부 주장
한화그룹 측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수사 실무책임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이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다가 조직폭력배와 만난 사실이 불분명 이달 22일 대기발령된 강대원 경정이 한화 측으로부터 '검

보 입수를 위해 오씨를 만났을 뿐이며 오씨가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사 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던 중 오씨를 만나 정보를 입수했으며 정보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사실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검찰조사를 통해 강경정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 경영기획실의 최영조 홍보담당관 사무는 "법무팀과 김 회장 담당 변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강경정이 주장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매수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두기업

태양광발전사업 토달 컨설팅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허가대행
-책임시공사 선정
-자금컨설팅
-태양광발전 사업비 펀드조성 컨설팅
-태양광 발전 시공 전문기업

※ 태양광발전 부지 매입 및 임대상담 환영

■ 협력사: (주)대림솔라, (주)썬앤리, 엔알솔루션(주)

한반도 솔라텍(주) www.hbsola.com T.(062)524-0321,8550, 8558 F.062-525-5689

● 화순 북면 3MW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1차 1MW 5월 착공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6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제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227-8003 (주)대형 앞 진원빌딩 4F

971-0002 빅마트 점점 앞 광주은행 4F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문 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6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